신조어·유행어로 본 상반기 취업시장

실업難 얼마나 심했으면…

이구백-이십대의 90%가 백수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 생각
공모병-공모전만 집중 공략

주5일제 따른 '척추 월요병' 눈길

'이구백'' 십장생' '취업 5종 세트' '공모병 환자'…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어려운 취업·직장 환경을 반영한 갖가지 신조·유행어가 등장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올 상반기 취업시장에서 새로 생겨나거나 유행했던 신조어를 3일 발표했다.

◇취업난 반영한 신조어='이구백' '십장생'이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구백'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이십대의 90%가 백수'라는 뜻이다. '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십장생'이란 말도 나왔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구직자를 가리키는 '나홀로 서울족'(인 서울족), 취직 못 한 신세를 일컫는 '빌빌 세대',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公試) 커플' 등도 회자됐다.

◇열린 채용 확대에 따른 유행어=학벌·학점보다는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보는 기업이 늘면서 '취업 5종 세트'라는 말도 나왔다. 인턴십·아르바이트·공모전·봉사활동 등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공모전 수상 기록이 입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공모전만 집중 공략하는 대학생을 가리켜 '공모병 환자'라고 불렀다.

◇지방의원·통장도 '직업'=지방의원도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면서 '선거 고시' '직업 의원님' 등의 말이 널리 퍼졌다. 통장의 위상과 대우가 높아지자 중년 주부들은 '통장고시'에 응시한다고 말했다.

◇주 5일제로 달라진 직장생활=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척추 월요병'이란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주중에 밤늦게까지 일하던 직장인들이 주말 내내 잘못된 자세로 누워지내면서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느끼는 허리 통증을 일컫는 말. 집처럼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을 갖춘 회사를 가리키는 '홈퍼니'(홈+컴퍼니), 인터넷 메신저 사용에 따른 '조용한 사무실', 다면평가 활성화로 인한 '직장 내신성적' 등의 신조어도 올 상반기를 특징짓는 낱말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먹고 버린 비양심 무더위 속에서 '테이크 아웃'(take out·요리나 음식을 구입해 들고다니며 먹는 것)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거리에 마구 버리는 바람에 충장로 일대가 '테이크 아웃'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 동구지역에는 한 달 평균 240t의 쓰레기가 길거리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동구청은 추정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사병 하루 급식비 5천원으로 오를 듯

사병들의 하루 식사비가 내년부터 5천원으로 195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병의 하루 급식비를 현재의 4천805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처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하루에 식사로 제공하는 쌀의 양을 현행 620g에서 내년부터는 570g으로 줄일 예정이다. 반면 고등어·갈치 등을 가시가 없는 통조림 형태로 바꿔주고, 과일도 하루 반개에서 한 개로 늘리고 돼지고기에서 갈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버섯·상추 등 야채류의 공급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도 교도소 수형자들의 하루 급식비를 현행 2천520원에서 내년에는 2천700원으로 올려달라고 기획처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내일까지 천둥·번개 '조심'

태풍 '에위니아' 6일부터 한반도 영향

"천둥 번개와 돌풍 조심하세요"

제주도 남해안에 있는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4~5일 광주·전남에 20~40㎜, 많은 곳은 6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순간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양쯔강 하류 지방에서 따뜻한 기압골이 접근,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대기가 불안정, 천둥과 번개 등이 잦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 초속 14m의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일 새벽 3시에 북서태평양 괌섬 남서쪽 약 1천100㎞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폭풍의 신)가 중국 대만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태풍은 6일쯤에는 중심기압 955hPa·최대풍속 초속 41m·강풍 반경 550㎞의 대형 태풍으로 발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40㎞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産團지역 여수·광양 산성비 농도 강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산재한 여수와 광양에서 올 상반기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상반기 강우산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여수(삼일동)의 빗물 pH(산성도)는 5.0~5.4, 광양(중동)은 4.9~5.4로 각각 나타났다.

환경청은 산성비의 원인으로 여수와 광양에 조성된 화학·정유·철강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등이 다량으로 배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농성동)의 빗물 pH는 5.0~6.1, 목포(용당동)는 5.8~6.1로 측정돼 여수 등에 비해 산성이 약했다.

한편 환경청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광주의 빗물 평균 pH 5.08 ▲목포 4.89 ▲여수 4.98 등으로, 올해보다 산성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산성비(酸性, acid rain)=pH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며, 5.6 이하를 '산성비'라고 부른다.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며, 건축물이나 시멘트 구조물의 부식을 초래한다.

지방선거 당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중

7명 기소·기소예정…4명 수사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7명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예정이며, 4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제4회 지방선거 관련 단속결과 지금까지 총 443건, 89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하고 2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관련 수사 대상자는 48명으로 기초단체장이 17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0명 등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27곳 가운데 17곳의 단체장 당선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중 7명이 기소됐거나 기소될 예정이고 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6명은 불기소됐다.

경찰은 또 기초의원 당선자 가족 박모(여·44)씨를 구속하고, 기초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대상자 중에는 기초단체장 관련 사건이 51.3%(463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의원 40%(287명) ▲광역의원 관련 14.8%(133명) ▲광역단체장 1.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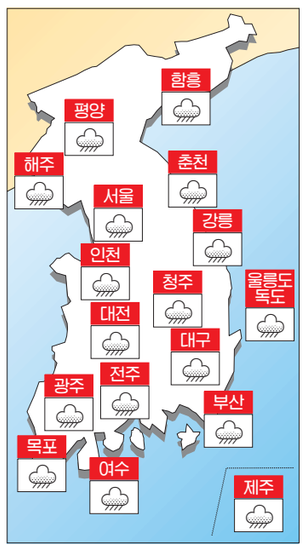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돌풍 주의하세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7월 4일 (음 6월 9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번개	22~24℃
목 포	흐리고 비, 번개	22~24℃
여 수	흐리고 비, 번개	20~22℃
완 도	흐리고 비, 번개	21~24℃
구 례	흐리고 비, 번개	22~25℃
해 남	흐리고 비, 번개	21~24℃
장 흥	흐리고 비, 번개	21~24℃
고 흥	흐리고 비, 번개	20~23℃
순 천	흐리고 비, 번개	22~25℃
영 광	흐리고 비, 번개	22~24℃
진 도	흐리고 비, 번개	21~24℃
전 주	흐리고 비, 번개	22~24℃
남 원	흐리고 비, 번개	21~24℃
정 읍	흐리고 비, 번개	22~24℃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서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7:35 20:25 썰물 00:39 13:21
여 수 밀물 02:15 15:21 썰물 08:42 21:22

▲해뜸 05:23 ▲해짐 19:51 ▲달뜸 13:10 ▲달짐 00: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날 씨						
최저/최고	20/27	21/27	21/28	21/29	22/26	21/28

"학생 체벌·차별대우 자제하세요"

시교육청, 학습지도 권고 공문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무리한 체벌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체벌 등 학습 및 생활지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권고했다.

공문에 따르면 학습지도의 경우 ▲가정환경과 학부모 직업 및 지위에 따른 차별 대우 ▲학습능력에 따른 좌석배치 차별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학생에 대한 체벌 및 모욕적인 발언, 방과 후 해결 강요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됐다.

또 ▲형성평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 대한 체벌 및 모욕적인 발언, 특별구역 청소지시 ▲점수 공개를 통한 우열 의식 조장 ▲성적에 따른 차등적인 체벌 등도 기피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생활지도의 경우 ▲한 학생의 잘못인데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대 체벌 부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일방적인 체벌, 필요 이상의 반성문 강요 등을 지양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에도 일선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 ▲비교육적이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 ▲군대식 기합 및 단체기합 등 학생 벌주기 ▲학생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사용 등의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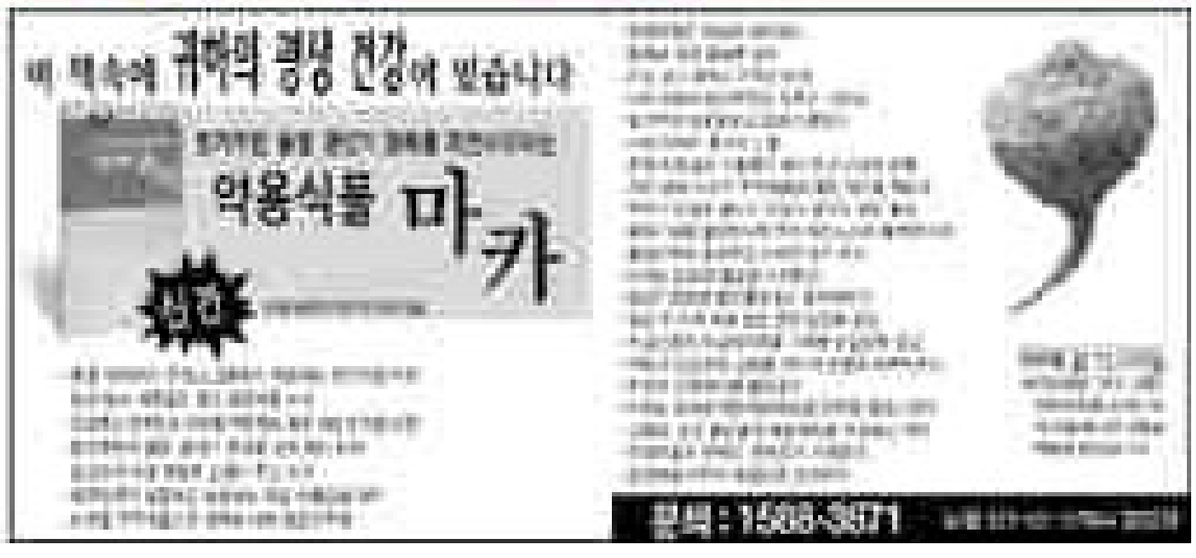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외국인 의사 진료 내년부터 허용

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이나 동일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을 일반 중환자실과 분리 설치하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중환자실 1.2명 ▲신생아 중환자실 1.5명 이내로, 병상 당 면적은 ▲중환자실 10㎡ ▲신생아 중환자실 5㎡ 이상 확보토록 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토록 돼 있는 것을 고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전체 입원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배정토록 했다. 이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재난 발생시 환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입원실을 지하에 둘 수 없도록 했으며, 한방 병·의원에서도 약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규격약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